

— 보도/해명자료

중소기업청의 보도/해명자료를 알려드립니다.



제 목	창업투자회사 진입요건 대폭완화 추진		
담당부서	벤처 투자과	담당자	정재경
E-mail		전화번호	042-481-4487
조회수	97	등록일	2009-03-27
첨부자료	첨부 자료가 없습니다.		



창업투자회사 진입요건 대폭완화 추진

- '벤처캐피탈 리스크관리자 워크샵'에서 밝혀 -

□ 창업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.

+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이 주최하고 한국벤처투자 (대표이사 김형기)가 주관한 '벤처캐피탈 리스크관리자 워크샵'에서 중소기업청 조주현 벤처투자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+ 현재 창투자 등록을 위한 설립요건으로 70억원의 납입자본금과 2~3인의 전문인력 확보가 요건이다.

- 하지만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이 창투사의 자체 자원보다는 타인의 자산을 모집하여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,

+ 전체 창업투자 자원 중 회사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(투자잔액 기준)(00) 64.8% → (02) 46.4% → (04) 34.3% → (06) 28.0% → (08) 24.0%

- 투자시장의 성숙으로 자본금 규모를 재정건전성과 활발한 투자 활동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납입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

* 또한 창투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의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3인을 등록요건으로 적용하고 있으나,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다른 창투사를 차별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어 '2인 이상'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* 예로써 A사(자본금 70억원), B사(200억원)가 각각 150억원 규모의 조합을 운영할 경우 A사는 3인, B사는 2인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함

□ 한편 국내 벤처캐피탈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모색을 위해 처음으로 정부·업계·전문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'벤처캐피탈 리스크관리자 워크샵'은 국내 벤처캐피탈의 리스크관리자 및 준법감시인 100여명이 참여하였다.

+ 한국벤처투자 김형기 사장은 '이번 행사를 계기로 벤처투자업계의 선진화와 투명한 투자문화 정착을 기대한다'며, 지속적인 벤처캐피탈의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□ 강사로 참석한 (주)유니타스 김종구 부회장은 리스크관리의 기본 방향과 관리체계, 분석방법 및 위기관리방안 등 심층적인 벤처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.

□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(주)는 년2회 워크샵 개최 및 선진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생력 있는 시장중심의 벤처 투자·성장 환경을 조성하고, 투자시스템 및 펀드운용방식도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시킬 계획이며,

+ 동 행사가 벤처투자의 신뢰도 향상과 펀드운용 선진화의 전환점이 되어 벤처투자 활성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.

☉ **붙임 : 2009년 제1차 벤처캐피탈 리스크관리자 워크샵 계획**

덧글쓰기

목록

이메일보내기

↑ 이전 글 500만불 500개 수출중기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출범

↓ 다음 글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? 그럼 사업하세요

담당 : 대변인 문의사항 : 국번없이 ☎1357 이메일 : 1357@smba.g

내용물 알려주세요?

1점

2점

3점

4점

5점

점수주기

점수확인